나눔의집, 해임 취소소송에 "항소 안 한다"

정식이사회 체제로 전환 '신호탄'

이사 스님들, 정상화 위한 결단
"법원 판결 아쉽지만 수용할 것"
임시이사회 체제선 정상화 요원
"명예 회복보다 정상화가 우선"
관리감독 책임 통감…안정 찾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나눔의집 운영논란 이후 지속된 일련의 혼란이 2년만에 종식될 전망이다. 나눔의집 이사스님들이 최근 법원의 '경기도 해임명령 취소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결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스님들은 임시이사회 체제가 1년간 지속됐음에도 정상화에 난항을 겪는 나눔의집 상황을 보며, "이사로서의 명예회복보다 나눔의집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들의 항소포기는 사실상 '정식이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나눔의집 정상화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1월 20일 나눔의집 이사스님 5명이 경기도 해임처분의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제기한 '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기각을 결정했다. 나눔의집 법인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됐으며, 이사스님 중 입적한 前 대표이사 월주 스님에 대해서는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이사스님들에 대한 경기도 해임처분은 특정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성실하게 시설이 운영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라며 "법인 이사들이 시설의 위법행위를 자세하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해임명령은 이사스님들 개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아닌,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처분이라는 것이다.



나눔의집 운영논란 이후 지속된 내홍이 2년만에 종식될 전망이다. 사진은 나눔의집 전경.

이에 대해 나눔의집 이사스님들은 "법원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항소를 통해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사스님들은 나눔의집이 정식이사회 체제에서 본격적인 정상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스님들은 "애초 이번 소송은 이사들 개인에게 제기된 횡령·배임 등 의혹들이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해임처분이 내려진 데 대한 부당성을 가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다시 이사로 활동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그러나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정상화가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명예보다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前 시설장과 前 사무국장에게 운영을 전담토록 한 결과, 많은 부실운영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책임은 통감하고 있기에 단지 이사 스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지속할 경우 나눔의집 정상화는 더 지체되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임시이사들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파견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되레 혼란이 가중되고 정상화의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며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참담함을 느꼈다"며 "하루빨리 정식이사회 체제로 전환돼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나눔의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스님도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던 불교계 원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라며 "이제는 나눔의집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이사스님들의 항소포기는 사실상 해임명령 처분의 확정이라는 점에서, 나눔의집은 정식이사회 체제로 전환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임시이사회가 지지부진했던 근본요인 중 하나로 권한의 한계가 지적된 만큼, 정식이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정상화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우 스님은 "나눔의집이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아 설립 정신을 계승하고 나날이 발전하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 국회정각회 법문서 '十善' 실천

정각회, 2월 9일 신년법회 봉행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 정치인을 비롯한 재가불자들에게 '십선계(十善戒)'의 실천을 강조했다.

국회정각회(회장 이원욱)는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국회정각회 신년법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만이다.


2월 9일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 법문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이 자리에서 법사로 나선 원행 스님은 "미륵부처님은 중생들이 십선법을 지킬 때 오신다고 했다. 우리 스스로 십선을 행할 때 미륵부처님이 나투어 고통이 없는 정토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기에 못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매순간 실천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원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 간 갈등, 정파 간 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적 통합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도(中道), 모순과 대립을 화합하여 더 높은 가치를 이끌어내는 화쟁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온 불교계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모범적으로 방역에 앞장섰고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 국민들을 보듬어 줬다"며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자타불이, 화쟁, 중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때에, 국회 역시 정각회를 중심으로 그 가르침을 토대로 화해와 상생을 위한 행보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부회장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 사무총장 도각 스님 등 임원단과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이헌승 부회장, 홍문표·김영주 고문을 비롯한 정각회 회원과 방정균 청와대불자회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손창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끝으로 참석 대중들은 이헌승 정각회 부회장이 대독한 발원문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고윤환 문경시장에 공로패 수여

총무원장 원행 스님, 2월 9일
전통문화에 기여한 노력 치사
세계명상마을 지속관심 당부

조계종이 고윤환 문경시장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국가·지역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보수정비,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남다른 성과를 낸 데 따른 공로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의 예방을 받고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며 표창패를 수여했다. 원행 스님은 "문경지역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종립특별선원 봉암사의 세계명상마을 건립에 공로가 있다"며 공로패 수여의 취지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봉암사와 김용사, 대승사 등 문경지역 사찰의 유지계승과 문화재 지정 및 보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특히 문화적으로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어 반갑고 든든하다"고 치사했다.

고윤환 시장은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의 완공을 위해 약소하지만 마무리 공사를 위한 제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과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토대로, 앞으로도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은해사 주지후보에 법일·덕조·불산 스님 출마

은해사 선관위, 2월 7일 후보등록 마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주지 후보에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총무원 前 사회부장 덕조, 운부암 선원장 불산 스님이 출마했다.

은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본)는 2월 7일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법인, 덕조, 불산 스님이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2월 17일 오후 1시 육화원에서 개최된다.

법일 스님은 경주 기림사·청송 대전사 주지, 제11·12·14대 중앙종회의원, 학교법인 능인학원 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은해사 주지 직무대행과 대구불교방송 사장을 맡고 있다.

덕조 스님은 하양포교당·영천 진불암·경산 불굴사 주지,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주 약천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산 스님은 동화사 금당선원장, 도성암 선원장, 전국선원수좌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운부암 선원장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